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병 왕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사진을 통한 공간상실의 시각적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 양 화 과

사진을 통한 공간 상실의 시각적 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조 병 왕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박정선

인 준 서

박정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집’을 소재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석사과정 동안 진행한 작품내용과 표현 형식을 분석하여 서술한 것이다.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중요한 공간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억과 추억이 형성되어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고 크고 작은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다. 그 모습은 개인경험의 형상으로 일상에서 존재하고 시간 변화에 의한 것과 또는 우리 감정에 의해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발견되고 해석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계속된 인구 증가와 산업구조의 변화 및 도시화 진전으로 빠른 발전을 해왔다. 이러한 도시발전은 편리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었지만, 발전 속에서 주거 지역 및 형태 즉, 어떤 집에 사는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짓는 재건축사업이 서울 곳곳에서 유행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집을 상실하게 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작가의 감성에 의해 나타난 작품의 구체적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추억 속 공간의 상실로부터 시작되어 평면과 입체로 형상화된 작품을 통해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작품 진행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스스로 모색하고 앞으로 진행 될 작업 방향에 대하여 작업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목 차

논 문 개 요

작 품 목 차

참 고 도 판 목 차

I. 서 론	1
II. 본 론	3
1. 작품의 내용적 측면	3
1) 추억 속 공간 상실	3
2) 주거공간의 변화	7
2. 작품의 조형적 측면	9
1) 회화적 사진	9
(1) 기억의 형상화를 위한 아크릴 릿과 드로잉	11
(2) 치유와 보호막으로서의 글루 와 레진	12
(3) 소멸적 기능으로서의 스크래치	13
2) 입체적 사진	14
(1) 3차원적 조각 사진	14
(2) 부조적 사진	16
3. 작품분석	19

작 품 도 판

Ⅲ. 결 론 48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금호 제 17구역1, oil, digital print on canvas, 137x91.44cm, 2009.

[작품 2] 금호 제 17구역2, oil, digital print on canvas, 137x91.5cm, 2009.

[작품 3] 금호동 819-1번지, acrylic, digital print on canvas, 137x57.5cm,
2010.

[작품 4] 부르주 할리파 (버즈두바이), digital print cube, glue, form board,
50x50x80(h)cm, 2010.

[작품 5]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digital print cube, glue, form board,
42x28x132cm, 2010.

[작품 6] 타이베이101, digital print cube, glue, form board,
20x20x110(h)cm, 2011.

[작품 7] 시어스 타워, digital print cube, acrylic, digital print on canvas,
70x90, 2010.

[작품 8] 금호동 2가1, digital print cube, glue, phenol resin on wood
panel, 40x30x5(h)cm, 2011.

[작품 9] 금호동 2가2, digital print cube, glue, phenol resin on wood panel, 40x30x5(h)cm, 2011.

[작품 10] 독산동, pencil, digital print on paper, 40x96.5cm, 2013.

[작품 11] 스카이하파트, pencil, digital print on paper, 50x100, 2013.

[작품 12] 천호동, pencil, digital print on paper, 20x100cm, 2013.

[작품 13] 천호동드로잉기록, pencil, on paper, 15x30cm/각각, 2013.

[작품 14] 장지동 화훼마을, digital print cube, glue, phenol resin on wood panel, 20x20x5(h)cm, 2013.

[작품 15] 가락동시영아파트1, digital print cube, glue, phenol resin on wood panel, 123x53x10(h)cm, 2014.

[작품 16] 가락동시영아파트2, digital print cube, glue, phenol resin on wood panel, 96x76x10(h)cm, 2014.

참 고 도 판 목 차

[도판 1] 금호동 개발 지정 구역, 2007.

[도판 2] 강 홍구, 사라지다 흰 개, Digital C-print, 220x90cm, 2009.

[도판 3] 금호동 집터, 2009.

[도판 4] 금호동 819-1번지, 2009.

[도판 5] 작품 14, 장지동 화훼 마을.

[도판 6] 손상된 사진 이미지 확대 컷.

[도판 7] 성동구 금호동, 2014.

[도판 8] 송파구 석촌동, 2014.

[도판 9] 금호동 1015-1번지, 2009.

[도판 10] 금호동, 2009.

[도판 11] 금호동, 2014.

[도판 12] 독산동, 2013.

[도판 13] 천호동 재정비 구역 2009.

[도판 14] 천호동 재정비 구역 2014.

[도판 15] 장지동 화훼 마을, 2012.

[도판 16] 장지동 화훼 마을, 2012.

[도판 17] 가락동 시영 아파트, 2013.

[도판 18] 가락동 시영 아파트, 2013.

I. 서론

인간생활의 기본요소로 의(衣) 식(食) 주(主)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주(主)는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며 위험요소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면서 자연이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다. 이렇게 집이라는 공간은 인간의 삶을 담는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원초적 측면에서는 집이라는 것은 태아기 때부터 모친의 보호 속에서 안정감을 누렸기 때문에, 본능에 따라 집이라는 장소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발전에 의한 집에 대한 개념은 바뀌고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원주민들은 이에 따른 강제적 이주로 이웃과의 추억과 공동체를 해체 시켰으며 원하지 않는 곳에 정착함으로써 두려움과 혼란을 겪었다.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타인에게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표시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 환경오염, 빈부격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부터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짓는 재개발이 서울 곳곳에서 유행하게 되면서 집이라는 공간을 상실하게 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진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작품의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추억 속 공간의 상실로부터 시작되어 평면과 입체로 형상화된 작품을 통해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품 진행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스스로 모색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작업의 방향에 대하여 작업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본론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뉜다. 첫 번째 단락은 작업의 내용적 측면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재개발 지역에서 겪었던 공간의 상실로 인한 주

거공간의 변화가 작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서술할 것이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사진 큐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작품에서 드러나는 조형적 측면에 대하여 분석한다. 입체적 사진구조에서 보이는 유형학적인 사진 이미지와 작품을 이루고 있는 재료적 요소에 대한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겠다. 마지막 단락인 결론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작품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되돌아보고, 본 논문을 통하여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1) 추억 속 공간 상실

기억 속의 공간은 인간과 연계되어 있다. 일정장소 내에서의 적응과 일정 장소 내에 뿌리를 내리고 각각의 고유한 장소로부터 토착적인 정체성을 얻는 방법을 통하여 형성된다. 거주 장소에 대한 기억은 연속성과 친밀성의 경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기억 속에 잠재된 물리적인 환경은 자신의 고유한 경험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특정한 의미가 깃들게 된다.¹⁾

마르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1889~ 1976)는 인간은 세계 내에 던져져 있는 ‘피투성이 존재’라 하였다. 인간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 의미와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인간이 관계하는 장소와 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더욱이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 까지 관계하고 있는 장소와 공간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세계 내에서 인간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호흡 하는 공간이 바로 집이다.²⁾ 좋은 기억으로 가득한 집은 거주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반대로 기억할 만한 추억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다. 이-푸 투안 (Yi-fu Tuan 1930~)의 말처럼 거주자의 기억과 추억의 정도에 따라 집의 특별함과 의미가 변화하는 것이다.³⁾

1) 정 유희화, 집에 대한 공간체험과 기호론적 의미: 백석론, 학술논문, 2001, p.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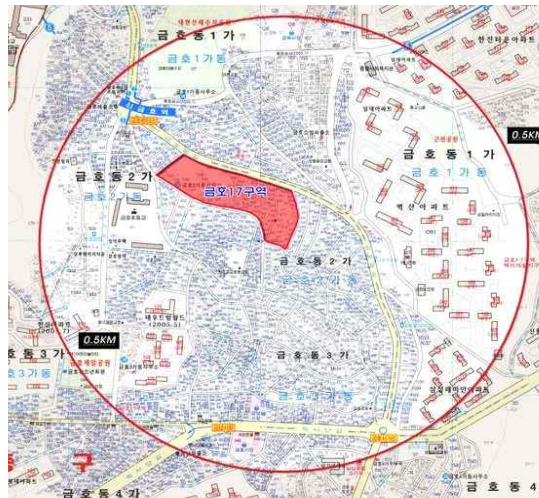
2) 위와 같음, p.25

3) 홍 영옥 외 저, 생활 속의 공간예술, 2005, p.11.

본인에게 있어 금호동이란 곳은 주변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친구들과 소중하고 따뜻한, 정서적 교류로 기억되는 공간이었다. 또한, 금호동은 판자촌으로 이루어진 곳과 현대식 건물이 같이 공존하는 동네로 하나둘씩 사라지는 판자촌의 집들과 새로운 집들의 생성이 반복되는 동네였다.

금호동은 면적 1.94km², 인구 5만 6,613명(2008)을 이루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속한 동이다. 응봉산 서쪽 기슭에 있으며, 남쪽은 한강과 접해 있고, 북쪽은 하왕십리동·행당동, 서쪽은 신당동·옥수동과 마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옛날에는 다른 지역보다 지형이 가파르고 기복이 심했고, 좁은 지역에 비해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⁴⁾

1998년부터 도시 환경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여 2006년 정비계획 수립⁵⁾ 이 세워져 청계천 복원과 함께 왕십리가 뉴타운⁶⁾ 시범지구로 지정되고 ‘디자인 서울’⁷⁾ 정책에 의해 탄력을 받아 2007년 본격적으로 금호 제 17, 19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⁸⁾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되었다.(도판 1참고)



[도판 1] 금호동 개발 지정 구역, 2007.

4) 금호동 (Geumho-dong, 金湖洞), 두산백과

5)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 2007-51호

6) 뉴타운, (new town = new city) 즉, 신도시를 말한다.

영국에서 시작 된 뉴타운 제도는 북미권을 비롯한 서유럽 등 여러 국가의 호응을 얻었으며 국내에는 인구 과밀화와 집중화 현상을 대비해 시행된 위성도시 정책과 지방 공간 조성등이 이러한 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 되었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7) 디자인 서울은 서울이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로부터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이후 서울의 환경과 디자인을 개선하려는 계획이다, 위키 백과사전

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국, 2012

본인은 주거이전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남아 있으며 재개발로 주민들이 떠난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고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던 동네는 빈집들의 모습에 공허함과 두려움을 느꼈다. 강제적 이주 후 다시 찾아가본 동네는 본인이 기억하고 있던 금호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사람들이 떠난 빈집들은 기계들로 인해 파괴되어 흔적도 알아볼 수 없이 사라지고 본인의 소중한 기억과 추억의 흔적들도 사라져 버렸다.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에 대해 강홍구 작가는 역사적 순간의 목격에서 자신이 마주친 현실적 풍경을 통해 ‘자본주의 아래 엇갈린 욕망이 그대로 들어나는 진 풍경’⁹⁾ 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도판 2] 강 홍구, 사라지다 - 흰 개, Digital C-print, 220x90cm, 2009.

이렇게 인간의 삶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재개발은 기존의 노후 주거지가 지닌 삶의 터전으로서의 장소성의 상실과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오게 되었다.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 1944~)는 장소를 사회 심리학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장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9) 강홍구 작가노트 중

장소는 인간 존재의 심원한 중심으로 정의하는 대체로 무의식적인 의도성에 장소의 본질이 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 살고 있는, 또는 특히 감동적인 경험을 가졌던 장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장소를 의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안정감의 근원이자, 우리가 세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외부로 지향시키는 출발점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 - 10)

본인에게서의 금호동은 어린 유년시절 전부를 보내며 살아왔던 지역이며 살아가는 공간이자 보금자리였다. 도시개발 열풍 속에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린 주거지 상실로 인한 혼란은 본인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았던 부모님과 이웃들도 재개발 속 소외된 인간의 모습이었으며 정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본인은 정부의 정책으로 갑을 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던 이웃들을 만나며 사진매체를 이용하여 재개발 지역의 상황적 배경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형식의 기록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인의 작품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사진매체 속에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추억이 되어 나타났다.

10) 렐프의 정의에 따르면 장소는 곧 장소 정체성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Relph, “장소와 장소상실”, p.139

2) 주거 공간의 변화

주거(住居)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생활을 수용하고 영위하는 장소로서 인간의 정서적인 내면과 함께 물리적 객체인 공간 사이에서 맺어진 심리적, 사회문화적인 측면도 같이 포함¹¹⁾된다. 주거의 기원은 공격적인 자연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장소라는 단순한 개념에서 비롯되었지만, 현대사회에서 주거공간은 점차 기능과 편의성만 추구하면서 집의 상품화로 인해 부동산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주거의 의미가 질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렇듯 주거의 의미는 시대가 변화 할수록 점차 주거가 담는 내용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으며,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도 다양하다.

주거의 개념은 1970년대 이후부터 여러 학자에 의하여 구체화 되어왔는데, 시드니 올트먼 (Sidny Altman 1939~)는 주거를 문화와 환경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였고, 각각의 다른 문화가 어떻게 그들의 물리적인 환경과 연계되는가를 보여주는 창(window)의 개념이라 하였다.¹²⁾ 이렇게 주거의 개념은 심리학적, 철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자아 이미지의 확장, 내면 세계화 외면세계의 교두보, 가족의 상징으로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¹³⁾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은 멋지고 화려한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이웃들과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며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고 있었다. 강제 이주로 인해 삶을 박탈당하고 이웃들과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새로운 동네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주한 사람들 모두가 익숙하지 않은 공간

11) 정 준성, 거주 공간 확장을 위한 소형공동주택 공간계획 조정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3, p.5

12) Altman, Irwin, Chemers , Martin. 1986, Culture and Environment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 155

13) 이 경희, 윤 정숙, 홍 형욱 공저, 주거학 개설, 1993, p.4~6

에 대한 불안과 외로움, 혼란을 가져왔으며 사회적 관계망의 해체로 우울감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사회적 관계망 의미는 상호의존적 관계(tie)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구조를 말한다. 이렇게 재개발 사업은 거주민들의 인생 전부를 바꿔놓는다.

사회인류학자 미첼 (Mitchell 1969~)은 사회적 관계망을 ‘한정된 일군의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특정한 연계의 집합’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연계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이에 관련된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⁴⁾ 또한, 사회적 관계망은 구성과 조직에 따라 인구학적 특징 접촉기간, 지리적 근접성, 밀도, 안정성이 있다.

재개발 사업 이전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정비사업 후 원거주지로 돌아와 다시 정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원주민 재정착률 이라 하는데, 이것은 주민의 사회경제적인 안정에 이바지한 척도로서 활용된다. 또한, 원주민 중 소유자의 경우 모두 입주권이 주어진다든 점에서 재정착 가능성은 높으나 세입자의 경우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착의 여지가 없다.¹⁵⁾

재개발 사업은 교육, 행정, 보건위생, 환경 등의 변화는 거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 생활여건이나 경제활동, 주민 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이기 힘들다. 이제 사람들에게서 집은 본래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으로 단란한 기억의 장소가 아니다.

14) 원 효중, 재인용 1997

15)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2 .작품의 조형적 측면

1) 회화적 사진

사진(photography)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빛(phos)'과 '그린다(graphos)'의 합성어로 '빛으로 그린다.', '빛의 그림'이란 뜻이다. 물체의 형상이나 흔적을 카메라를 통해 빛을 포착해 감광막 위에 나타나도록 찍은 뒤 현실 공간을 평면적 화면에 나타내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든 사진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록매체이다. 즉 2차원의 평면 영상으로, 또는 의사 전달을 하는 영상언어(visual language)로서의 표현매체라 할 수 있으며 직설적이고 호소력 있는 가장 강력한 영상전달 수단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¹⁶⁾

사진 속에는 현실이 있고 이것은 때때로 진짜 현실보다 더욱 현실적인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다.

알프레드 스티글리츠(Alfred Stieglitz 1864~ 1946) ¹⁷⁾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1915~ 1980)의 사진에 관한 대표적 저서로 꼽히는 '밝은 방'은 사진에 본질에 대한 탐구로, 존재론적 차원에서 사진 자체가 무엇이며, 어떤 본질 적인 특징들을 통해 다른 이미지들과 구분되는가를 현상학적으로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밝은 방'은 사진의 매체적 특성이 바로 지 표적 특성에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이것이 수용자의 개인적, 사회적 기억이나 경험과 어떻게 만나는지 기술한다.¹⁸⁾ 롤랑 바르트는 문화적

16)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17) Alfred Stieglitz, Beaumont New hall, 1982, p.238

인 필터를 통과한 사진들 안에서 작은 환희나 흥미를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사진들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흥미보다는 어떤 세세한 부분에 의해 자신을 감동하게 하는 “푼크툼”을 확인한다. 그 어원으로부터 일종의 통증이나 찢린 자국으로 이러한 요소를 “푼크툼”이라 명명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방식으로 보는 이를 붙잡고 포획하며 일깨우고 놀라게 한다.¹⁹⁾ “푼크툼”은 겉으로 드러내는 사진의 명쾌한 의미를 동요시켜, 오로지 그에 게만 해당하는 유일한 감정을 유발한다.

금호동에 다시 찾아가 보았을 때 처음으로 가본 곳이 본인의 집터였다. 건물이 사라져 있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집의 입구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곳이 본인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라진 집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었다. (도판 3참고)



[도판 3] 금호동 집터, 2009.

18) 주 형일, p147

19)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목소리의 결정, p.442

(1) 기억의 형상화를 위한 아크릴 립과 드로잉

기억이란 사람이나 동물 등의 생활체가 경험한 것이 어떤 형태로 간직되었다가 나중에 재생 또는 재구성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신체적 습관·컴퓨터 등 기계적 기억도 넓은 의미에서의 기억에 포함된다.²⁰⁾ 이렇듯 기억은 알게 모르게 마음에 흔적을 남겨, 현재의 정서에 간간히 떠올라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작품에서의 사진이미지(작품 1, 2, 3, 10, 11, 12, 13)들은 경험에 의한 기억들로 남아있는 실제 존재 했던 공간의 기록이기도 하면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공간의 이미지로 치열한 삶의 현장과 폭력적인 모습이 느껴진다. (도판 4 참고) 이러한 도시 풍경 속에 회화적 요소가 없으면서 현실과 비현실의 사이에서의 충돌이 사라져 가는 것들에 잃어버린 기억을 회복시키는 노스탤지어(nostalgia)²¹⁾를 이끌어냈다.



[도판 4] 금호동 891-1번지, 2009.

20) 두산 백과

21) nostalgia(노스탤지어)는 "향수(鄉愁), 향수병(homesickness), 과거에 대한 동경, 회고의 정"을 뜻한다. 1688년 오스트리아의 의학도 요하네스 호퍼(Johannes Hofer, 1669~1752)가 산 속에 주둔한 스위스 용병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묘사하기 위해 그리스어 nostos(return)와 algos(pain)를 합쳐 만든 말이다. 교양 영어사전 2, 인물과 사상사, 2013

(2) 치유와 보호막으로서의 레진

치유(治癒)는 마음의 감성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사진 매체로 기록한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재개발 지역의 사회적 약자의 모습이다. 개발구역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제도들이 있었어도 피부로 다가오는 정책은 있지 않았다. 본인은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애처롭고 상처받은 모습에 치유하고, 약자의 보호막이 되어 주고 싶었는데 재료 특성상 종이들로 이루어진 사진블록 들은 작품(작품 8, 9, 14, 15, 16)에 Goldden사의 UV 차단제와 플라스틱 코팅제인 ‘레진’을 발랐다. 레진은 강도가 단단한 물질로 의미상 치료와 보호의 목적을 담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렇게 표현된 사진 큐브들은 더 밀착되고 외부적인 충격에도 견디는 보호막 속집들이 되었다. (도판 5참고)



[도판 5] 작품 14 장지동 화훼마을.

(3) 소멸적 기능으로서의 스크래치

본인의 작품(작품 8, 15, 16)은 인화된 감광지 위에 흠집이 난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연약한 감광지 위에 뾰족하고 날카로운 거친 도구를 사용하여 긁거나 흠집을 내는 것은 보통 꺼려지는 행위이다. 이러한 흠집의 행위를 통해 낡은 집의 이미지들은 소멸 된다. 심리학적 사전에서 소멸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기억이 잊히는 현상²²⁾이라 하는데, 이러한 스크래치는 사회적 쟁점이 되어 관심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또, 재개발 정책에 상처받은 모습과 오랜 시간 가난한 삶에 찌든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도판 6 참고)



[도판 6] 손상된 사진 이미지 확대 컷.

22) 소멸(decay), 실험심리학용어사전, 시그마프레스(주), 2008

2) 입체적 사진

오늘날 미술은 퇴폐, 다원화의 사회이든, 이미지의 사회이든, 테크놀로지와 시뮬라시옹(simulation)의 사회이든 오랜 준거 틀을 깨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 속으로의 편입을 요구한다.²³⁾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초창기 작업의 평면적 요소를 후기 작업에서 입체적 실체로 구현하였다.

(1) 3차원적 조각사진

조각의 사전적 의미는 3차원적 입체형상을 조형하는 예술. 어의(語義)로는 돌이나 나무 같은 재료를 끌로 파서 새긴 것을 뜻한다.²⁴⁾

현대미술에서의 사진매체는 독창적이고 순수한 역사 범주에 들지 않고,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언제나 장르들의 경계를 허물면서 또한 예술적 실행에 있어 총괄적인 이중교배를 시행하면서 서로 다른 조형예술들을 교차시키는 사진²⁵⁾의 특징이 나타났다.

본인의 작품에서 사진 매체로 기록한 이미지는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과 추억을 확장 시켜 입체적인 요소, 사각형의 도형들로 나타났다. 사각형은 자연으로부터 인류가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도형²⁶⁾중 하나로써 허름한 집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집을 안정적인 사각형으로 만들게 되었으며 금호동에서 보았던 아날로그적 건축 양식이 표현되었고, 건축가의 입장에서 사진들을 견고하게 쌓아올리며 작품을 진행하였다.

2차원 사진을 입체적 사각 도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 편집이 필요했는데, 여기에서 이미지 편집은 컴퓨터에서 하는 디지털 편집으로 자르거

23) 김성호, 미술평론집 1, 창작의 커뮤니케이션과 미술미평, 2008, p.86

24) 조각(彫刻, sculpture), 미술대사전(용어편), 한국사진연구소, 1998

25) 도미니크 바케, 현대 조형 사진론, 이 경률 역, 사진마실, 2006

26)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

나 변형시키는 것이 아닌 축소한 이미지이다. 편집 프로그램은 포토샵(Photo shop)을 이용하였고 0.8cm x 1.3cm, 2cm x 4cm, 4cm x 6cm 크기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접는 부분과 접착제로 붙이는 곳, 오리는 곳은 선으로 표시하여 사진을 인화했을 때 편집으로 표시해둔 곳을 따라 오리고 부착하면 조그마한 집의 이미지의 사각블록 모양이 된다. 조그맣게 된 집은 미니어처 같지만, 미니어처의 사전적인 의미는 '실물의 크기를 축소하여 실물과 똑 같이 정교하게 재현한 것'²⁷⁾이라 되어 있다. 본인이 사각형으로 만든 사각형의 집은 사진을 작게 축소한 것일 뿐 재현한 것은 아니며, 재개발 집을 축소한 사각 도형이다. 이렇게 본인의 손에서 태어난 사각 큐브의 이미지들은 추억을 봉인한 듯 한 모양이 되었고 향수가 느껴졌다.

빌딩시리즈(작품 4, 5, 6, 7)의 뼈대를 이루는 것들은 건축모형제작의 재료로 쓰이고 있는 폼보드(formboard) 소재이다. 작품에서 사용한 폼보드의 두께는 3mm, 5mm로 건물의 뼈대를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재료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강한 힘을 가하게 되면 부서진다. 이는 급격히 발전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전 불감증과 부실의 문제를 표현해 보려 하였다. 사진 큐브를 부착하는 접착제의 재료로는 스테이플러(stapler)와 실리콘 소재의 접착제 글루(glue)로 고정했다. 실리콘의 접착력으로 건물의 외관은 화려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낡은 집의 이미지와 연약한 재료로 본인의 방식으로 파손된 형태의 빌딩이 나타났다.

27) 미니어처(miniature), 국립국어원

(2) 부조적사진

부조의 사전적인 의미는 평면 위에 표현된다는 점에서는 회화에 가깝지만, 입체적인 감각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는 조각의 일종이다.²⁸⁾

작품에서 보이는 빌딩시리즈(작품 4, 5, 6, 7)와 금호동 시리즈 (작품 8, 9), 가락시영아파트(작품 15, 16), 장지동 화훼마을 (작품 14)의 작품 속 여러 개의 사진 큐브들은 다큐멘터리와 예술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 유형학적 사진²⁹⁾으로 나타났다. 유형학이란 쉽게 말해 관상학에서 동 식물학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 꼴을 분류하고 배치하는 것³⁰⁾으로서 일반적인 유형학적 사진은 아카이브 사진과 예술사진의 중간에 위치한다. 사진매체를 이용한 본인의 작품에서는 보이는 이미지가 사진 앨범을 보는 것처럼 한 화면에 나타나 유사성을 강조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이미지들을 통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통적 본질을 알 수 있다. 재개발 구역의 강한 자의 힘에 의해 인위적으로 해체되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 사진큐브들의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표현하였고, 항의했지만 끝내 강자의 힘에 이길 수 없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나약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본인의 주도적인 사진 큐브들의 배치로 동네가 재구성되었다.

사각형의 사진 큐브들을 (작품 8, 9, 14, 15, 16) 고정해주는 나무 패널은 사각형 형태의 틀을 선택하였는데, 원하는 치수의 나무 패널을 주문하여 작품을 실행할 수 있었지만 제도화되고 만들어진 기성품의 나무 패널을 선택한 2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재개발구역의 집들을 돌아다니다 보

28) 부조(浮彫, relief), 세계미술용어 사전, 월간미술, 1999

29) 유형학적 사진, 유형학은 멀리 1920년대 아우구스트 잔더에서 시작하여 30년대 알버트 랭거-파취의 신즉물주의를 거쳐, 60년대 베허부부(Bernd Becher : 1931~2007 Hilla Wobeser 1934~독일)에 의해 양식화된다. 독일 사진의 전통으로 말해지는 유형학적 사진은 예술적 오브제가 아닌 동시대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는 시대의 오브제로서 가치중립적, 중성적 태도로 대상에 다가서는 것을 말한다.

30) 마크 프리더스 , 도감진, 김 우룡 옮김, 푸른 세상, 2003, p.98

면 집들이 오래되어 여름엔 집에 비가 새고 겨울엔 찬 황소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시로 보수해야 할 때 나무패널 과 비닐을 집수리용으로 사용한다. 개발지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료 중 나무 패널을 선택한 것이고, 2번째 이유는 개발구역의 위성지도를 보면 불규칙하게 나열된 집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계획적으로 발전된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집들이 불규칙하게 나열된 것을 볼 수 있다. 재개발 초기에 도시 경관과 건물의 외형적 모양으로 설계 할 때 건물이 세워지기 편리하도록 인위적인 사각형의 모양으로 설계 되는데, 이는 자연스런 동네의 모습이 아닌 인위적임으로 만든 동네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도판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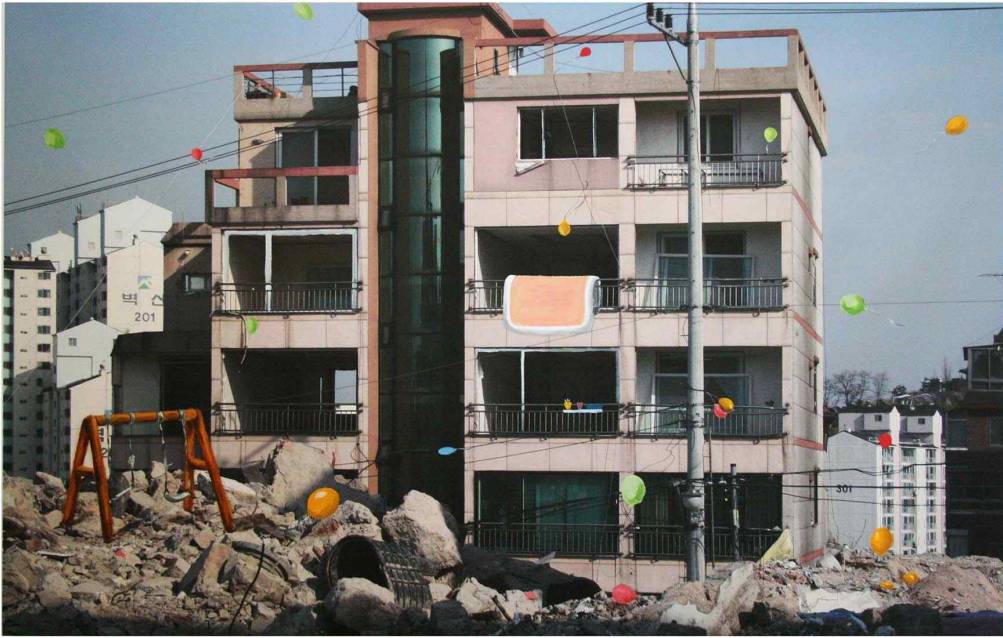


[도판 7] 성동구 금호동, 2014.



[도판 8] 송파구 석촌동, 2014.

3.작품분석



[작품 1] 금호 제 17구역1, oil, digital print on canvas, 137x91.44cm,
2009.



[작품 2] 금호 제 17구역2, oil, digital print on canvas, 137x91.5cm, 2009.



[작품 3] 금호동 819-1번지, acrylic, digital print on canvas, 137x57.5cm, 2010.

앞서 작품의 형성 과정에서 언급하였듯이 본인 작업의 근간이 된 것은 본인이 유년시절을 보냈던 금호동이 재개발되면서 공간 상실로 인한 그리움으로 작업이 시작되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재개발시리즈 작업들을 통해 이미지 속에서 읽을 수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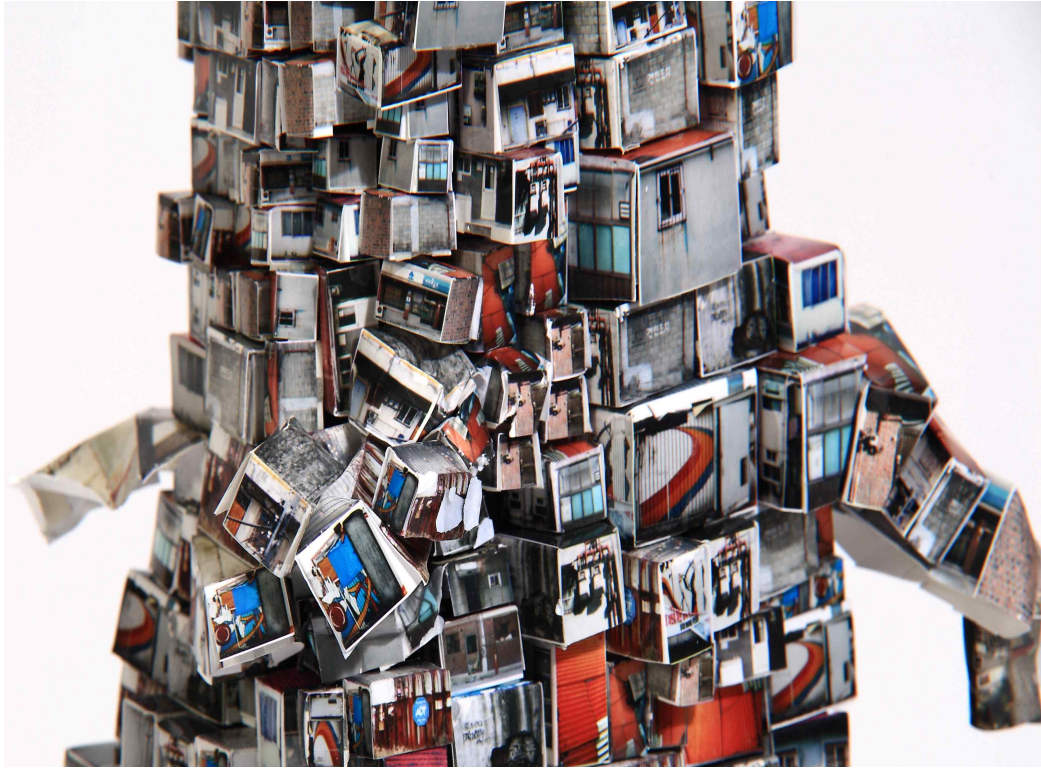
[작품 1], [작품 2], [작품 3]

[작품 1, 2, 3]에서 다뤄진 작품 이미지는 2008년 11월에 촬영한 이미지이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터 근처로 촬영된 이곳은 금호동2가 1021-2번지 일대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들이 떠나간 흔적들을 캔버스 천에 인쇄하고 원색의 물감을 이용하여 주거환경 속 사람들의 정감 있는 기억들을 장난감의 흔적으로 새겨 넣었다.

[작품 1]에 등장하는 다가구 주택은 사람들이 떠난 텅 빈 공간이지만 1층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본인이 기억했던 주택의 모습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네와 풍선을 그려 넣어 사람들의 흔적을 기록했다. [작품 2], [작품 3]은 공통으로 곰 인형이 화면에 등장하는데 곰 인형은 사람에게 반려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던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물건이다. [작품 2]는 기계들로 파괴되어 버린 건물의 잔해 위에 몸통이 잘려나간 곰 인형이 널브러져 있는데 파괴된 건물과 같이 본인의 추억들도 조각나고 흩어진 기억들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 3]은 언젠가 돌아올 사람들을 무작정 기다리는 모습을 들을 하고 있는 곰 인형들을 통해 집에 살았던 가난 했지만, 행복한 생활을 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통로가 되었다.



[작품 4] 부르주 할리파(버즈두바이), digital print cube, glue, form board,
50x50x80(h)cm, 2010.



[작품 4] 부르주 할리파 (버즈 두바이) 세부 컷.



[작품 5]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digital print cube, glue, form board,
42x28x132cm, 2010.



[작품 6] 타이베이101, digital print cube, glue, form board,
20x20x110(h)cm, 2011.



[작품 7] 시어스 타워, digital print cube, acrylic, digital print
on canvas, 70x90, 2010.

[작품 4], [작품 5], [작품 6], [작품 7]

빌딩 시리즈[작품 4, 5, 6, 7]에서 공통으로 건물을 이루고 있는 사진매체는 우리나라의 재개발 지역의 집 이미지이다.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용지 확보를 위해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두바이[작품 4]는 어촌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으며, 타이베이10 [작품 5], 엠파이어스태이트 빌딩[작품 6], 시어스 타워 [작품 7] 또한 허름하고 오래된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본인의 작품에서 언급한 빌딩은 급격히 발전했지만 내실은 부족하고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지고 걸만 화려 한 곳이라는 것과 또한 빌딩을 짓기 위해 공권력을 앞세워 원주민을 쫓아내는 방식을 표현하려고 했다. 갑을 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서로 다른 나라지만 재개발에 따른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구조물의 틀과 구성물을 병치시켰다.



[작품 8] 금호동 2가1, digital print cube, glue, phenol resin on wood panel, 40x30x5(h)cm, 2011.



[작품 9] 금호동 2가2, digital print cube, glue, phenol resin on wood panel, 40x30x5(h)cm, 2011.

[작품 8],[작품 9]

[작품 8, 9]는 앞서 [작품 1, 2, 3]에서 보이는 것처럼 본인이 살았던 금호동에서 느껴진 일들에 대한 기억을 표현하였다. 다시 찾아가 본 금호동은 갈기갈기 뜯긴 집들은 본인이 기억했던 곳이 아닌 낯선 곳에 있는 기분이었다.(도판 9 참고) 재개발 후 모습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 옛날의 모습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도판 10, 11 참고)

[작품 8]은 카메라가 기록한 사진들을 샌드페이퍼로 이미지를 훼손시켜 사라져 가는 마을을 표현하였으며 [작품 9]에서의 구김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라의 정책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동네를 떠나야 했고,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집에 사는 사람과 이미 기계들로 파괴된 지역의 집들을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가해 사진을 구겨 주거공간으로 상실된 집들을 표현하였다.



[도판 9] 금호동 1035-1번지, 2009.



[도판 10] 금호동, 2009.



[도판 11] 금호동,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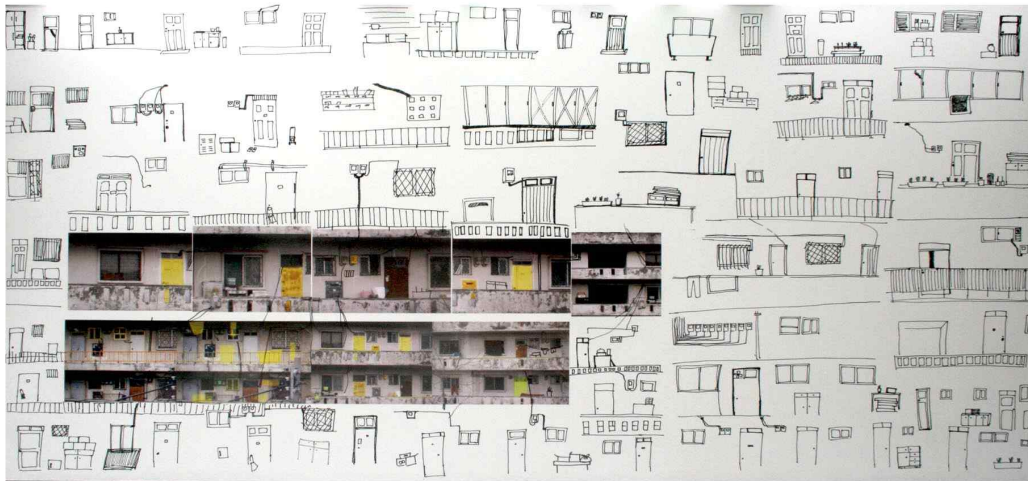
[작품 10] 독산동, pencil, digital print on paper, 40x96.5cm, 2013.

[작품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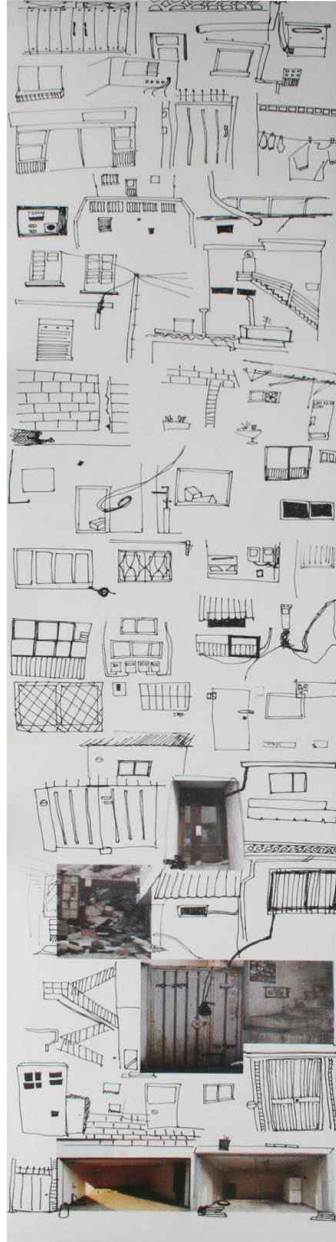
작품에서의 이미지는 금천구 독산동으로 이곳은 1970년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이전으로 인하여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이주정책으로 이루어진 동네였다. 현재 이곳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과 한국 주민들이 사는 곳이다. 그리하여 각종 범죄가 잦은 곳이며 조선족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 쓰레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도판 12 참고) 독산동에서 얻은 이미지는 포토샵으로 사진블록을 만드는 것처럼 편집하고 종이에 인쇄하여 그 위에 촬영을 하며 다닌 길들을 펜으로 기록 드로잉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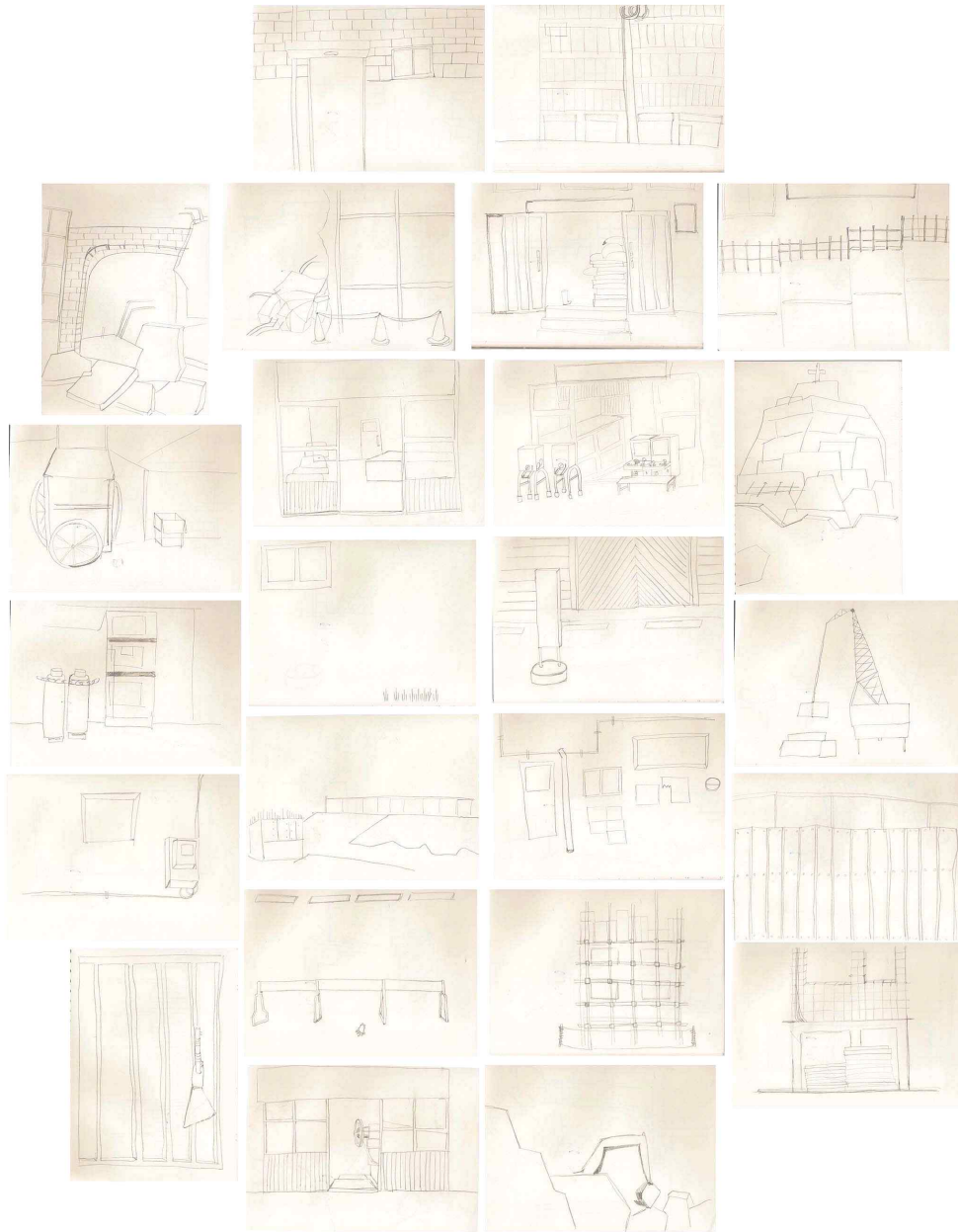
[도판 12] 독산동, 2013.



[작품 11] 스카이하파트, pencil, digital print on paper, 50x100, 2013.



[작품 12] 천호동, pencil, digital print on paper, 20x100cm, 2013.



[작품 13] 천호동드로잉기록, pencil, on paper, 15x30cm/각각, 2013.

[작품11], [작품 12], [작품 13]

앞서 작품에서 2, 3차원적 사진 구조로 나타났다면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작품 11, 12, 13]은 달라진 표현방식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앞의 작품은 사진매체로만 재개발 구역을 표현했다면 사진매체와 함께 펜으로 그려낸 드로잉³¹⁾이 동시에 보이는 이미지로 방식을 달리해 나갔다. 사진에 의해 이미지 하나하나 복제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기억한 집들을 직접 펜으로 드로잉 하여, 대상의 특징적인 부분은 살리고 복잡한 부분은 생략되어 집에 대한 기억의 형상을 간단히 기록함으로써 하나하나 표현된 이미지 속집들은 그들만의 사연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아 향수가 되어 나타났다. [작품 11]에 보이는 정릉의 ‘스카리아파트’라는 곳을 사진 매체로 기록했다. 아파트는 하나의 건물에 여러 채의 집들이 있다. 똑같은 배열의 문과 창문으로 이루어진 집들이 붙어있는 아파트의 모습을 그것에 맞게 축소 나열하여 인쇄하였고, 그것을 이어가는 것은 본인이 현장에서 보았던 모습을 드로잉으로 재연하여 작업을 이어나갔다.

[작품 12, 13]은 드로잉 작품은 천호동이 배경이다. 천호동은 도시계획으로 개발된 동네가 아닌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동네이기 때문에 금호동처럼 집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다. 그곳에서 찍었던 이미지배치를 불규칙하게 하여 종이에 인쇄 한 다음 직접 펜으로 그려낸 이미지로 작품을 이어 나갔고 ‘스카리아파트’ [작품 11]에서 처럼 현장에서 기록한 드로잉으로 작품을 하여 ‘스카리아파트’와 ‘천호동’을 표현하였다. 천호동 재정비 구역은 본인이 촬영했던 동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현재 그곳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모습도 같이 기록하였다. (도판 13, 14 참고)

31) 드로잉은 선을 사용하여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는 기술로써 색채 보다는 선적 수단을 통하여 대상의 형태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세계미술용어 사전, 월간미술, 1998, p.250~251



[도판 13] 천호동 재정비 구역, 2009.



[도판 14] 천호동 재정비 구역, 2013.



[작품 14] 장지동 화훼마을, digital print cube, glue, phenol resin
on wood panel, 20x20x5(h)cm, 2013.

[작품 14]

작품에서 다뤄진 ‘장지동 화훼마을’은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마을이었다. 이곳은 7,486㎡(2,264평)에 191가구 409명의 주민들이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1982년 잠실 아파트단지 조성 시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해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이곳에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살면서 형성됐다.³²⁾ 이곳 주민들은 이미 삶의 터전을 한번 박탈당했던 사람들이었다. 주민들은 그러한 삶 속에 익숙해진 듯 보였으나 서울시의 디자인 서울정책에 의해 마을 둘레에 생겨난 울타리들은 그들의 아우성이 짓밟힌 듯 보였다.(도판 15참고) 이곳을 촬영하면서 집집마다 설치된 LPG가스통이 놓여 있어 화재 위험의 요소(도판 16참고)들이 있었다. 몇 번의 화재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장지동을 조사해 보며 알아낸 것은 원주민이 아닌 보상금을 노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재개발 지역을 돌아다니며 느낀 것은 생활 상태와 형편이 비슷한 이웃과 협소한 공간에서 밀집하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 접촉 기회가 많아 인정이 넘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장지동 화훼마을의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으로 작품을 풀어나갔는데, 사진의 색을 밝게 편집하여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무허가 판자촌에 사는 인정 넘치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사진 채도를 올려 밝은 무채색으로 보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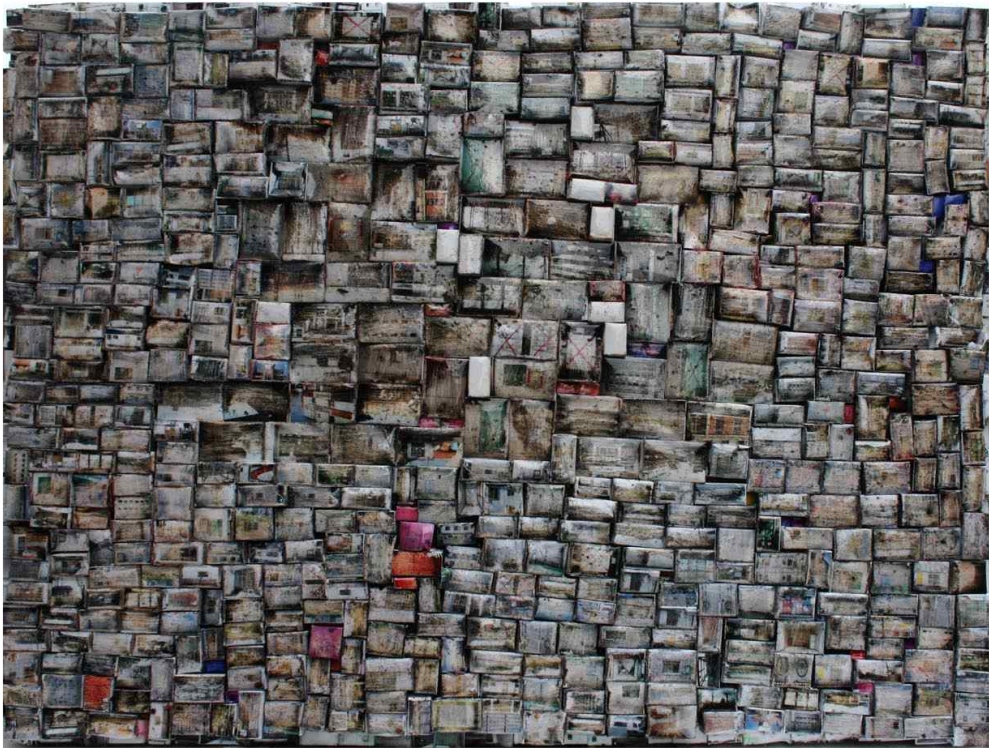
32) 그린 경제, <http://www.egre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512>



[도판 15] 장지동 화훼마을, 2012.



[도판 16] 장지동 화훼마을, 2012.



[작품 16] 가락동시영아파트2, digital print cube, glue, phenol resin on wood panel, 96x76x10(h)cm, 2014.



[작품 15] 가락동 시영 아파트1, digital print cube, glue, phenol resin
on wood panel, 123x53x10(h)cm, 2014.

[작품 15, 16]

본인은 재개발 이주정책으로 인해 송파구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가장 큰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가락 시영 아파트’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이곳은 철거민 입주용으로 지었던 곳 이었는데 위치는 송파구 가락1동에 있으며 1981년 5월에 착공하여 1982년 6월 총 134개 동 (1차 74개 동/2차 60개 동) 으로 준공되었다.³³⁾ 1999년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이 이루어 졌지만 조합 측 에서 분양면적과 가구 수를 일부 수정하면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시작돼 15년 동안 소송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본인은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동네에 대한 역사와 그곳 환경을 조사하고 촬영에 들어가는데, 다른 촬영 장소와 달리 원주민들이 보이지 않았고, 건물입구와, 현관문에는 빨간색 페인트로 X자 표시와 함께 잠겨 있었다. (도판 17, 18참고)

근처 공인중개사에서 남아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에 치안이 좋지 않아 남아있는 주민들끼리 그룹을 지어 돌아가며 단속을 하고 수상한 사람들이 보이면 쫓아낸다고 하였다. 며칠 후 다시 찾아가 본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만날 수 있었다. 말을 나누어본 주민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고 가족, 이웃과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들을 회상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조합원들끼리 소송을 하고, 이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힘든 부분에 대하여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주민과 이야기를 하며 느꼈던 일들을 앞서 [작품 8, 9]에서 처럼 편집은 하되 사진의 색 편집은 하지 않았다면 [작품 14, 15, 16]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컬러의 색을 무채색과 어두운색으로 보정하고 편집, 디지털 프린트 하여 사각 블록을 만들어 작품을 하였다.

어두운 사진의 색을 바꾼 이유는 재개발 공고로 인적이 끊긴 폐허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 효과적이게 표현을 하기 위함이다. 어두운 이미지에

33) 이 정희,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

스크래치를 내어 어느 작품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도판 17] 가락동 시영 아파트, 2013.



[도판 18] 가락동 시영 아파트, 2013.

Ⅲ. 결 론

본인은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의 작업 기간 집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으며,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작업들은 여러 재료로 표현되어 그 이미지가 나름의 작품 관을 형성하고 새로운 조형적 형태가 나타났다.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은 오늘날 부동산 재산의 하나로 투자의 수단이거나 상품으로 전락해 버렸다. 작품을 통하여 강자들의 물질적 가치를 채우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 때문에 희생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모두가 잊고 외면해가는 현실을 떠올려 나타내고자 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공간과 소통,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 있는 인간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며 형성된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고 그 배경과 조형적 측면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이다.

재개발시리즈의 시작은 영상매체의 접근으로 시작되었었다. 이러한 접근은 본인이 경험했던 작업주제와 표현방식이 적합하다 느꼈으나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 습작에 불과했다. 이렇게 영상매체로의 접근시도는 평면 회화에서 느낀 확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영상기술을 습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서 지금의 사진 큐브들이 등장하고 그것이 입체요소로 나타났다.

본인의 작품을 본 관객들과 주변 사람들은 사진 큐브들이 만들어지는 행위와 재료적 특성에 관해서만 관심을 보였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미지의 호기심이 아닌 본인의 작업에서 다뤄지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확장할 것인가가 앞으로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사진 큐브로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사라져 가는 집들을 사진매체로 기록해야 했는데 이렇게 기록된 이미지는 그 자체가 작업이 아닌, 폐허가 된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기록된 이미지는 본인의 손에서 큐브가 만들어지는 반복 행위가 도시발전 모습인 생성과 소멸, 증식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사진큐브들이 모여 3차원적 입체작업과 사진 큐브들이 나열되며 유형학적 사진과 드로잉 기록이 나타났다. 앞으로의 작업은 처음 영상매체의 시도로 작품이 시작된 만큼 기술적인 부분을 더 보완하고,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 작업에 투영시켜 확장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을 통하여 그간 본인이 제작한 작업을 돌아보고 주제를 진행하고 풀어나가는 데 있어 어떤 소재와 방법으로써 확장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이 논문 작성을 바탕으로 좀 더 성숙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작품의 내실을 기하는 작가로 거듭나고 싶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건설교통부 주택국, 정비사업 업무편람. 2004 p.21.
- 김 성호, 미술평론집 1 ,창작의 커뮤니케이션과 미술 미평, 2008, p.86
- 도미니크 바케, 현대 조형사진론, 이 경률 역, 사진마실, 2006
- 롤랑 바르트, 목소리의 결정, p.442
- 마크 프리더스 도감전, 김 우룡 옮김, 푸른 세상, 2003, p.98
- 서울특별시, 뉴타운 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 , 2007, p.158
-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국, 2012
- 실험심리학용어사전, 시그마프레스(주), 2008
- 주 형일, p147
- 홍 영옥 외 저, 생활 속의 공간예술, 2005, p.11.

Alfred Stieglitz, Beaumont Newhall, 1982, p.238

Babara London, 사진학강의, 조 윤철 역, 포토스페이스, 2008, p.364.

Relph, 장소와 장소상실, p.139

<논문>

- 박 은하, 이 연정 , 집의 의미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학술 논문, 2011
- 이 정희,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
- 장 정민, 저 불량 주거 지역의 이해 : 한계성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06, p. 130-140
- 정 유화, 집에 대한 공간체험과 기호론적 의미: 백석론, 학술논문, 2001, p.25
- 정 준성, 거주 공간 확장을 위한 소형공동주택 공간계획 조정방안, 건국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p.5

조 준우, 대도시의 확장과 그 이미지 : 서울 주변의 도시경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 5

<웹사이트>

그린경제, <http://www.egre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512>

두산백과, <http://doopedia.co.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사전>

교양영어사전2, 인물과 사상사

미술대사전(용어편), 한국사전연구사, 1998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시사상식사전, 박 문각

행정학사전

ABSTRACT

Study of visual expression for loss of space by photo

- Based on the works of the author of this study -

Park, Jeong-sun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about analysis and description of contents and expression forms regarding the works that the author creates from 2009 to 2014 during the course of master taking 'house' as the subject.

House is the important space required for everyone. The memories of family as well as an individual, were formed there, meaningful and everyone and it contains every life story. Its shape exists in ordinary life based the experience of an individual, it can be recognized and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its original meaning by time evolution and our feelings. Our society has grown up rapidly due to continuous population increase and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Such city development enabled us to enjoy the lives of convenient and high quality, residential area and its shape, that is which house he or she

lives in have become the important factor that assesses him or her in such development.

As the reconstruction project that demolish the old houses and build up new ones since it began at the early of 2000's got popular and the residents lost their houses, the stories of the excluded people were shown by the emotion of the author and the elements of the works were analyzed.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is study is to aim at forming the sympathy with people by the works that are visualized in plane and solid originated from loss of space in memories, searching for the improvement plan for each problem regarding carrying out the works and establishing the concept of the works.